

이슈페이퍼

2020-15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미국·한국 고용·실업 분석 및 전망

박하순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0.7.28.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고서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2-2670-9220 전송: 02-2635-1134 이메일: kctu-li@nodong.org.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요약〉	1
1. 서	2
2. 미국의 고용-실업 통계 분석	4
1) 미국의 취업자 변화 분석	4
(1) 미국의 산업별 취업자 변화	4
(2) 미국의 세부업종별 취업자 변화	9
(3) 소결	16
2) 미국의 실업통계 분석	16
3) 미국의 고용 및 실업 상황 종합 및 약간의 전망	17
3. 한국의 고용-실업통계 분석	21
1) 한국의 취업자 분석	21
(1) 한국의 연령별 취업자 분석	21
(2) 한국의 산업별 취업자 분석	24
(3) 한국의 직업별 취업자 분석	25
(4) 한국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분석	26
2) 한국의 실업통계 분석	27
3) 한국의 고용-실업 상황 종합 및 전망	31
4. 결 - 장기에 걸쳐 예상되는 대량실업이 주는 함의	33

요약

세계경제의 중심이자 현재 코로나 19 대유행이 가장 심각한 미국과 한국의 고용 및 실업 상황을 분석하였다. 다차원의 경제위기가 두 나라의 고용 및 실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 코로나 19의 대유행이다.

고용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한국 두 나라 다 4월에 취업자가 최저치로 내려갔다가 5월(한국 생활방역으로 복귀), 6월(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록다운 해제)을 거치면서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은 코로나 19 대유행에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19 대유행 이외에 이와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변수(구조조적 위기나 미국의 순환적 공황 등)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문도 있고 이들 부문은 록다운 해제 이후에도 고용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한편 고용회복세는 그리 강하지 않고 세계적으로는 5월 중순 이후,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는 6월 중순 이후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부분적인 록다운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백신개발이나 치료제 개발 등 획기적인 상황변화가 없다면 향후 상당기간 동안 고용 및 실업 상황의 개선 여지는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심지어는 악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관련해서 이런 고용-실업 상황이 함의하는 바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1. 서

다차원의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구조적 위기를 들 수 있다. 한국경제는 코로나 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에도 장기저성장 상태에 있었다. IMF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위기 공방이 있었지만 문재인정권 집권 이후 집권세력과 야권(자유한국당/미통당/보수세력) 사이의 최저임금, 고용위기, 경제위기 논란이 지속되었다. 이는 과잉생산 공황이라는 순환적 위기는 아니지만 IMF 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기이윤율 저하와 대외종속성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 때문에 진행된 논란이었다. 산업으로 보면 조선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상당한 위기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¹⁾

다음으로는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른 국내외적 사회적 거리두기(룩다운, 스테이홈, 섯다운)로 인한 경제위기다. 뒤에서 보겠지만 레저 및 접객업을 중심으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진행되었고 이들 부문에서의 위기는 코로나 19 대유행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필수부문 및 비대면 부문의 성장 저하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이들 부문에서의 대량실업은 필수부문 및 비대면 부문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요국이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비교적 방역에 성공한 한국같은 경우 이들 나라의 경제위기에 오는 수출부진이 경제위기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경제의 경우 코로나 19 대유행 전에 이미 순환적 공황 직전 상황에 있었다. 이 또한 한국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이 중 현재 경제에 가장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른 국내외적 사회적 거리두기(룩다운, 스테이홈, 섯다운)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국내외적 경제위기를 ‘코로나 공황’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 위기로 인한 측면과 미국경제의 순환적 공황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세계경제의 중심 미국과 한국의 ‘코로나 공황’ 초반의 고용과 실업통계를

1) 참고,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도래한 미국의 경제위기”, 진보평론 83호(2020년 봄호)를 참고하라.

분석하여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간략하게 이후 전망을 해보기로 하겠다.

미국도 한국도 4월까지 취업자수가 격감했다. 그런데 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5월 취업자수가 증가했고 취업자수 증가는 6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는 4월말부터 진행된 록다운²⁾ 해제와 4월 초에 시작된 급여보장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으로 인한 재고용 흐름³⁾⁴⁾이, 한국에서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4월이 이번 위기의 최저점이었고 이후 회복의 길을 갈 것인가, 그리고

2) 미국에서 록다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다. 일정 규모(대체로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스테이 홈’ 명령이 내려지고, 학교, 아동돌봄센터, 주점 및 식당(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은 가능), ‘필수적이지 않은 소매점포’가 폐쇄되었다. ‘스테이 홈’ 명령은 제일 먼저 캘리포니아주에서 3월 19일에 시행되었고 4월 초엔 몇 개주를 제외하고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었다. 그리고 4월말에서 5월 중순(5월 고용동향 조사시기) 사이에 미국 인구 3분의 1을 포괄하는 지역에서 록다운이 해제되어 경제생활이 단계적으로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부분 록다운 해제로 인한 취업자수 변화는 5월 고용동향에 반영이 되었을 것이고, 6월 고용동향 조사기간 이전에는 13일 뉴욕을 끝으로 미 전역에서 록다운이 해제되었다. 그렇다고 경제가 전면 재개된 것은 아니고 점차 재개영역을 넓혀갔다. 7월 조사기간에는 경제생활 재개를 되돌리거나 재개를 중단한 주들이 늘어났다.

3) 500인 이하 중소기업 등 민간조직에게 대출(노동자 임금비용 2.5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주고 이 대출금의 75%(나중에는 60%로 완화)를 임금에 지불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면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도록 하는 임금보장프로그램(PPP)을 이번 위기에 도입했다. 대신 그 전년도 평균 노동자수를 대출을 받은 이후 2개월 동안(나중에 6개월로 변경) 유지해야 한다. 인원이 줄거나 어떤 노동자들의 임금을 25% 이상 삭감하면 상환을 면제받는 액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사실상 정부가 민간기업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연봉 10만달러(1억 2천만원)라는 상한이 있고 비록 두 달치 정도 이긴 하지만 평소 받던 임금을 대부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Paycheck_Protection_Program#Loan_forgiveness 를 참조하라. 이 프로그램은 이번 위기에 미 정부와 의회가 마련한 Cares Act 중에서 가장 그 규모가 커 6,690억달러에 달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업자는 거의 500만, 이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노동자수가 5천1백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4) 3월 27일 성안된 2.1조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 전체가 미국 취업자수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기업대출, 실업급여, 가계재난지원금 등은 경기부양 성격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이 액수가 가장 크고(나중에 추가된 것 포함) 직접적으로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은 통상적인 시기의 경기부양법안과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정부지출 증대는 통상적으로 재정지출승수효과를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증대에 기여를 하는데 이번 법안의 경우 록다운으로 인해 일부 경제영역(비핵심 및 대면 부문)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들여도 이 부분에서의 성장이나 일자리 증대에는 영향을 줄 수 없게 된 것이다. 즉 ‘재난구제’로 인해 평소보다 재정지출승수가 더 적을 게 뻔하다. 문제는 비록 행정명령으로는 록다운이 취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코로나 19 대유행이 더 심각해지면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회복을 한다면 그 속도는 어떨 것인가 알아보기로 하자.

2. 미국의 고용-실업 통계 분석

우선 세계경제의 중심 미국의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위기와 대량실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이를 통해 미국경제의 상황과 가까운 장래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미국의 취업자 변화 분석

2월에서 6월까지의 취업자 변화를 살펴는데 두 구간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⁵⁾ 즉, 취업자수 변화를 위기 시작 직전인 2월에서 극히 일부 주를 제외한 미국 전역에서 록다운이 실천되어 일자리수가 최저치로 떨어진 4월까지의 취업자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이후 4월말부터 5월초부터 일부 주에서 시작된 록다운 해제와 4월 초순부터 시작된 강력한 고용유지프로그램인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으로 인한 재고용 바람이 취업자수 변동에 영향을 준, 4월에서 6월 사이의 취업자수 변화를 살핀다.

그래서 6월말의 취업자 상황은 급여보장프로그램의 시행의 효과, 행정명령에 따른 록다운(의 시행과 해제) 효과의 여파, 행정명령은 아니지만 코로나 19의 실제적인 감염 위험에 따른 경제활동 저하, 그리고 코로나 19 대유행과 결을 달리하는 구조적 위기나 공황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해야 할 것이다.

(1) 미국의 산업별 취업자 변화

① 2월에서 4월 사이의 변화

5) 미국의 경우 매월 12일이 낀 주의 고용상황을 조사해서 그 달의 고용상황을 대표하게 하고 있다.

[표 1]을 보면 미국의 취업자 감소는 3월에도 숙박 및 음식점 서비스를 중심으로 일부 진행되었지만 본격화한 것은 3월 중하순 록다운(이동제한)이 진행되면서부터다. 록다운 결과가 통계로 나타난 것은 4월이다.⁶⁾ 2월에 비한 4월의 취업자 수 비율은 85.5%로 그 기간동안의 취업자 감소율은 $100\% - 85.5\% = 14.5\%$ 다. 감소한 취업자수는 약 2,216만.

부문별로 보면 민간부문에서 4월까지 약 2,119만의 취업자가 사라졌고, 정부부문에서 약 97만의 취업자가 사라졌다. 감소율을 보면 민간부문은 16.3%고 정부부문은 4.3%다.

민간부문 취업자 감소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품생산(광업 및 벌채업, 건설, 제조업) 부문에서 4월까지 약 251만의 취업자가 사라졌고, 민간서비스부문에서 무려 약 1,868만의 취업자가 사라졌다. 취업자감소율은 상품생산부문 11.8%, 민간서비스부문 17.2%다. 취업자 감소 규모는 민간서비스부문이 압도적이고 취업자감소율도 민간서비스부문이 훨씬 더 높다. 이는 록다운(이동제한)의 효과가 서비스 부문에 더 집중적으로 나타난 때문이라 해야 할 것이다.⁷⁾

상품생산부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광업 및 벌채업에서 4월까지 약 6만, 건설업에서 약 108만, 제조업에서 약 136만의 취업자가 사라졌다. 취업자 감소율은 광업 및 벌채업 8.5%, 건설업 14.2%, 제조업 10.6%이다. 4월까지의 제조업보다 건설업에서의 취업자 감소율이 더 크다.

6) 3월 16일 캘리포니아의 '스테이홈 명령'으로 시작된 록다운 효과는 3월 고용상황(조사기간 3월 8일에서 14일까지)에는 나타나지 않고 4월에 나타난다.

7) 미국 경제는 코로나 19 대유행 이전에 이미 과잉생산 공황 직전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는 과잉생산 공황과 코로나 19 대유행(및 코로나 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록다운),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겹쳐진 결과라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잠깐 과잉생산 공황과 코로나 19 대유행의 효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에도 생산이 지속되고 있는 산업의 경우 과잉생산에 록다운으로 인한 수요감소가 겹쳐 과잉생산의 효과가 더욱 증폭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과잉생산의 경향을 보였던 일부 산업의 경우 록다운으로 인한 생산중단(및 결과적인 경쟁제한)이 과잉생산의 정도를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기의 심도 내지 취업자 감소 정도에는 취업자 감소가 어느 공황에 비할 바 없이 큰 것으로 봐서 록다운(이동제한)으로 인한 경제생활의 중단이 과잉생산에 비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기할 것은 과잉생산의 정확한 용법은 경제 전반에 걸쳐서 사용해야 할 것인데, 여기서는 업종산업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어서 용어의 엄밀한 용법은 아니라 하겠다.

[표 1] 미국의 대분류 산업별 취업자수 변화(단위: 천명)

	2020.2	2020.4	2020.6	2월-4월	4월/2월	4월-6월	6월/4월	2월-6월	6월/2월
비농 전산업	152,463	130,303	137,802	-22,160	85.5%	7,499	105.8%	-14,661	90.4%
민간	129,718	108,527	116,526	-21,191	83.7%	7,999	107.4%	-13,192	89.8%
상품생산	21,205	18,698	19,886	-2,507	88.2%	1,188	106.4%	-1,319	93.8%
광업 및 벌채업	714	653	624	-61	91.5%	-29	95.6%	-90	87.4%
건설업	7,639	6,556	7,167	-1,083	85.8%	611	109.3%	-472	93.8%
제조업	12,852	11,489	12,095	-1,363	89.4%	606	105.3%	-757	94.1%
민간서비스업	108,513	89,829	96,640	-18,684	82.8%	6,811	107.6%	-11,873	89.1%
유통, 운송, 유틸리티	27,830	24,475	25,732	-3,355	87.9%	1,257	105.1%	-2,098	92.5%
정보산업	2,894	2,609	2,579	-285	90.2%	-30	98.9%	-315	89.1%
금융업	8,845	8,566	8,608	-279	96.8%	42	100.5%	-237	97.3%
전문 및 사업 서비스	21,550	19,254	19,720	-2,296	89.3%	466	102.4%	-1,830	91.5%
교육 및 의료 서비스	24,586	21,805	22,772	-2,781	88.7%	967	104.4%	-1,814	92.6%
레저 및 접객업	16,867	8,549	12,040	-8,318	50.7%	3,491	140.8%	-4,827	71.4%
기타 서비스	5,941	4,571	5,189	-1,370	76.9%	618	113.5%	-752	87.3%
정부	22,745	21,776	21,276	-969	95.7%	-500	97.7%	-1,469	93.5%
연방정부	2,867	2,893	2,885	26	100.9%	-8	99.7%	18	100.6%
주정부	5,199	4,993	4,915	-206	96.0%	-78	98.4%	-284	94.5%
주립공교육	2,490	2,290	2,232	-200	92.0%	-58	97.5%	-258	89.7%
교육제외주정부	2,709	2,703	2,683	-7	99.8%	-20	99.3%	-26	99.0%
지방정부	14,679	13,890	13,476	-789	94.6%	-414	97.0%	-1,203	91.8%
지방정부공교육	8,042	7,596	7,375	-446	94.5%	-221	97.1%	-667	91.7%
교육제외지방정부	6,637	6,294	6,101	-343	94.8%	-193	96.9%	-536	91.9%

자료: 미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

민간서비스업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레저 및 접객업에서 4월까지 무려 약 832만의 취업자가 사라졌다. 전체 사라진 취업자의 37.5%이고 민간부문에서 사라진 취업자의 39.3%이다. 유통, 운송, 유틸리티에서 약 336만, 교육 및 의료서비스에서 약 278만, 전문 및 사업서비스에서 약 230만의 취업자가 사라졌다. 그리고 수리 및 유지관리 서비스, 개인서비스 및 세탁서비스 등이 속해 있는 기타서비스에서 약 137만, 금융업과 정보산업에서 각각 약 29만의 취업자가 사라졌다. 레저

및接客업 취업자 감소율은 무려 49.3%이고, 유통, 운송, 유틸리티에서는 12.1%, 교육 및 의료서비스에서는 11.3%, 전문 및 사업서비스에서는 10.7%, 기타서비스에서는 23.1%의 취업자가 사라졌다. 취업자 감소수와 감소율에 있어서 록다운의 피해를 심각하게 받은 레저 및接客업이 압도적으로 1위고, 기타서비스의 취업자 감소율도 매우 크다고 하겠다.

정부부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연방정부는 2월에서 4월까지 취업자가 3만 늘었는데 주정부에서는 약 21만의 취업자가 감소했고, 지방정부에서는 약 79만의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주정부의 취업자 감소율은 4%이고 지방정부 취업자 감소율은 5.4%이다. 주정부는 대부분 교육부문에 줄어들었고, 지방정부는 교육과 교육이외부문에서 비슷한 비율로 줄어들었다.

민간부문 취업자 감소는 이해가 간다하더라도 위기 시에 정부지출을 늘리는데 정부부문에서 취업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는 별개로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재정균형이 원칙이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세입이 감소하는데 여기에 세출을 맞춰야 한다. 한편 연방정부는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를 통해 주정부와 지방정부도 3,398억달러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매달의 지원액수가 세입감소액을 전부 커버하지 못하면 취업자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② 4월에서 6월 사이의 변화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4월에 비해 5월의 취업자가 많은 사람들의 취업자 감소예상을 깨고 270만이 늘어났다. 5월에서 6월 사이 그 추세는 강화되어 6월엔 5월에 비해 약 48만의 취업자가 늘어났다. 4월에서 6월 사이에 도합 750만의 취업자가 늘어났다. 증가율로 치면 5.8%다.

5월 고용상황은 앞서 얘기한대로 4월말에서 5월 15일까지 이루어진, 미국 인구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주들의 록다운 해제⁸⁾와 임금보장프로그램의 가동으로

8)

https://en.wikipedia.org/wiki/U.S._state_and_local_government_responses_to_the_COVID-19_pandemic 를 참조하라.

인한 일시해고자들의 일부 재고용 등의 변수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6월 고용상황은 전면적인 록다운 해제가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부문에서 약 800만이 늘어났고 정부부문에서 약 50만이 줄어든 결과다. 민간부문에서는 7.4% 증가하였는데 정부부문에서는 2.3% 줄어들었다. 정부부문에서 2월에서 4월 사이에 이어 4월에서 6월 사이에도 취업자가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역시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5월에는 53만이 줄었지만 6월에는 3만이 늘었다. 6월엔 미미하지만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⁹⁾

4월에서 6월 사이의 민간부문 취업자 증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품 생산 부문에서는 약 119만의 취업자가 늘어났고 4월에 비해 6.4%가 늘어난 것이다. 광업 및 벌채업에서는 약 3만이 줄었고, 건설업에서 약 61만, 제조업에서 약 61만이 늘었다. 광업 및 벌채업은 6월까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서 코로나 19 대유행 및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록다운이라는 변수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산업임을 알 수 있다.

민간서비스업에서는 4월에 비해 약 681만의 취업자가 늘어났다. 그 중에서 레저 및 접객업에서 약 349만이 늘었다. 2월에서 4월 사이에 가장 취업자 감소가 많았던 부문이다. 4월에서 6월 사이 취업자 증가율은 약 40.8%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가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래도 4월까지 감소한 취업자 832만 개에 비하면 절반도 회복이 안된 것이다. 그리고 교육 및 의료서비스에서 약 97만, 유통, 운송, 유틸리티에서 약 126만의 취업자가 늘어났다.

정부부문은 민간부문과는 달리 4월과 6월 사이에도 취업자가 줄어들었다. 약 50만이 줄어들었고 감소율은 2.3%다. 주정부에서 약 8만, 지방정부에서 약 41만이 줄어들어 감소율도 주정부 1.6%, 지방정부 3.0%로 지방정부 감소율이 더 크다. 이 기간 동안엔 연방정부에서도 취업자가 약 1만 줄어들었다. 이렇게 주정부, 지방정부에서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균형재정의 원칙이 작동한 결과다. 세입이 줄어들어 거기에 맞춰 세출이 줄고 구조조정을 한 결과다.

9)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취업자 증감은 세수변동의 효과와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3,398억달러의 자금의 효과의 합이라 해야 할 것이다. 즉 취업자가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그것이 꼭 세수증가의 효과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미국의 세부업종별 취업자 변화

① 미국의 상품생산부문 세부 업종별 취업자 변화

[표 2]를 보면 광업의 경우 2월에서 4월 사이 취업자 감소에 이어 4월에서 6월 사이에도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원유의 세계적인 과잉생산, 국제적인 감산 카르텔의 작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대유행 및 이에 대응한 록다운에 영향을 일부 받았겠지만 이와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변수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2월에서 6월까지 원유 및 가스추출업에서 약 5천개, 채굴지원사업에서 약 7만, 합해서 약 8만의 취업자가 감소했고, 채굴지원사업의 경우 2월에 비한 6월의 취업자 감소율이 22.8%에 이른다. 상품생산 취업자 감소율 6.2%보다 훨씬 높다.

건설업의 경우 2월에 비한 4월의 취업자 감소율이 13.9%였다가 6월에는 6.2%로 낮아졌다. 2월에서 4월 사이 전문건설업의 취업자 감소율이 일반건설이나 토목건설에 비해 약간 컸다가 그 이후 회복세가 약간 빠르다.

제조업의 경우 운송장비, 그 중에서도 자동차 및 부품업종의 취업자 감소가 매우 크다. 2월에 비해 4월에 약 36만이 감소했다가, 4월에서 6월 사이에 약 24만이 증가했다. 그래서 2월에 비해 6월 취업자 감소는 약 12만에 이른다. 2월에서 4월 사이 취업자 감소비율이 매우 높았으나 그 이후 꽤 개선이 되었다. 2월에 비해 4월의 취업자감소율은 36.0%이고 2월에 비해 6월의 취업자 감소율은 12.1%다. 5월에 비해 6월에 개선이 대폭 된 결과다.

의류제조업이나 인쇄및관련산업의 경우 종사자가 얼마 되지 않아 취업자 감소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나 취업자 감소율은 꽤 크고 자동차 및 부품업종보다 개선 속도도 더 느리다. 의류제조업의 경우 6월까지 17.7%이고, 인쇄및관련산업의 경우 13.7%에 이른다. 석유 및 석탄제품의 취업자 감소는 광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6월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반면 화학제품의 경우 6월까지의 취업자 감소율이 2.1%로 매우 낮다.

자동차 및 부품업종의 경우 록다운(이동제한), 즉 자동차 이용의 감소로 인한 수요감소가 취업자 감소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경제상황 악화, 고용상

황 악화, 예상되는 소득 감소 등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자동차 및 부품업종의 취업자 감소 전체가 코로나 19 대유행(및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록다운)에만 기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코로나 19 대유행 이전 자동차 산업의 과잉생산도 한 원인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표 2] 미국의 상품생산 세부 업종별 취업자 변화(단위: 천명)

	2020.2	2020.4	2020.6	2월-4월	4월/2월	4월-6월	6월/4월	2월-6월	6월/2월
상품생산	21,205	18,698	19,886	-2,507	88.2%	1,188	106.4%	-1,319	93.8%
광업 및 벌채업	714	653	624	-61	91.5%	-29	95.6%	-90	87.4%
광업	660	603	573	-57	91.4%	-30	95.0%	-87	86.8%
원유 및 가스추출	157	155	152	-1	99.2%	-4	97.7%	-5	97.0%
채굴지원사업	315	270	243	-44	86.0%	-28	89.8%	-72	77.2%
건설업	7,639	6,556	7,167	-1,083	85.8%	611	109.3%	-472	93.8%
일반건설업	1,689	1,457	1,589	-232	86.2%	132	109.1%	-101	94.1%
토목건설업	1,099	993	1,014	-106	90.4%	21	102.1%	-85	92.3%
전문 건설업	4,851	4,107	4,565	-744	84.7%	458	111.2%	-286	94.1%
제조업	12,852	11,489	12,095	-1,363	89.4%	606	105.3%	-757	94.1%
내구재	8,058	7,126	7,569	-932	88.4%	443	106.2%	-489	93.9%
가공금속제품	1,484	1,363	1,401	-121	91.8%	38	102.8%	-83	94.4%
기계	1,110	1,019	1,055	-91	91.8%	36	103.5%	-55	95.1%
컴퓨터 및 전자제품	1,098	1,087	1,091	-11	99.0%	4	100.3%	-7	99.4%
운송장비	1,743	1,342	1,583	-401	77.0%	242	118.0%	-160	90.8%
자동차 및 부품	999	639	878	-360	64.0%	239	137.4%	-121	87.9%
비내구재	4,794	4,363	4,526	-431	91.0%	163	103.7%	-268	94.4%
식품제조업	1,655	1,558	1,588	-98	94.1%	31	102.0%	-67	95.9%
의류제조업	105	68	86	-37	64.4%	19	127.8%	-19	82.3%
인쇄및관련산업	417	337	360	-80	80.8%	23	106.8%	-57	86.3%
석유 및 석탄제품	114	106	103	-9	92.5%	-3	97.4%	-11	90.1%
화학제품	851	830	833	-21	97.5%	3	100.3%	-18	97.9%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746	673	718	-73	90.2%	45	106.7%	-28	96.2%
기타비내구재	324	266	288	-58	82.2%	22	108.1%	-36	88.9%

자료: 미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

② 미국의 민간서비스업 업종별 취업자 변화

[표 3]을 보면 소매업에서는 의류 및 의류악세서리 업종의 취업자 감소율이 가장 크다. 2월에서 4월 사이에 무려 약 80만의 취업자가 사라졌고 이 기간 동안 취업자 감소율은 무려 61.8%에 달한다. 6월에는 4월에 비해 약 28만의 취업자가 늘어났고 증가율도 55.9%에 이르지만 2월에 비한 6월의 취업자 감소는 여전히 52만에 이르고 취업자 감소율은 40.5%에 이른다. 록다운이 해제되었다지만 여전히 문을 닫은 의류 관련 소매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른 측면으로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회사출근 등이 줄면서 옷을 더 적게 구매하고 그래서 해당 업종에서 취업자 감소가 많이 일어난 측면도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표 3] 미국 민간서비스업 업종별 취업자 변화(단위: 천명)

	2020.2	2020.4	2020.6	2월-4월	4월/2월	4월-6월	6월/4월	2월-6월	6월/2월
민간서비스업	108,513	89,829	96,640	-18,684	82.8%	6,811	107.6%	-11,873	89.1%
유통, 운송, 유틸리티	27,830	24,475	25,732	-3,355	87.9%	1,257	105.1%	-2,098	92.5%
소매업	15,672	13,288	14,399	-2,384	84.8%	1,111	108.4%	-1,273	91.9%
자동차 및 부품 딜러업	2,064	1,686	1,854	-377	81.7%	167	109.9%	-210	89.8%
의류 및 의류악세서리	1,289	492	767	-797	38.2%	275	155.9%	-522	59.5%
잡화점	3,047	2,869	3,062	-178	94.2%	192	106.7%	15	100.5%
백화점	1,079	811	907	-268	75.2%	96	111.9%	-172	84.1%
창고 클럽과 슈퍼센터 등	1,968	2,059	2,155	90	104.6%	96	104.7%	187	109.5%
운수 및 창고업	5,678	5,108	5,179	-570	90.0%	70	101.4%	-499	91.2%
항공운송	511	433	380	-78	84.7%	-54	87.6%	-132	74.3%
관광운송	37	13	19	-24	34.1%	7	155.2%	-17	52.9%
택배	848	861	905	13	101.6%	44	105.1%	57	106.7%
유틸리티	546	542	538	-4	99.3%	-5	99.1%	-9	98.4%
정보산업	2,894	2,609	2,579	-285	90.2%	-30	98.9%	-315	89.1%
영화 및 사운드 레코딩 산업	456	220	213	-236	48.3%	-8	96.5%	-244	46.6%
금융업	8,845	8,566	8,608	-279	96.8%	42	100.5%	-237	97.3%
금융보험업	6,486	6,443	6,449	-44	99.3%	6	100.1%	-37	99.4%
전문 및 사업 서비스	21,550	19,254	19,720	-2,296	89.3%	466	102.4%	-1,830	91.5%
노동력 공급 서비스	3,650	2,641	2,852	-1,010	72.3%	212	108.0%	-798	78.1%
단기 노동 서비스	2,940	2,048	2,244	-892	69.7%	196	109.6%	-696	76.3%
여행사업	223	176	162	-47	79.1%	-14	91.8%	-61	72.6%
교육 및 의료 서비스	24,586	21,805	22,772	-2,781	88.7%	967	104.4%	-1,814	92.6%
보건의료사회서비스	20,758	18,488	19,332	-2,270	89.1%	844	104.6%	-1,426	93.1%
보건의료업	16,507	14,930	15,603	-1,578	90.4%	674	104.5%	-904	94.5%
외래의료서비스	7,855	6,522	7,295	-1,333	83.0%	773	111.8%	-560	92.9%
치과	977	428	875	-549	43.8%	447	204.4%	-102	89.5%
병원	5,261	5,140	5,112	-121	97.7%	-28	99.5%	-149	97.2%
사회복지서비스	4,251	3,558	3,729	-692	83.7%	171	104.8%	-522	87.7%
아동 돌봄 서비스	1,039	668	780	-371	64.3%	112	116.8%	-258	75.1%
레저 및 접객업	16,867	8,549	12,040	-8,318	50.7%	3,491	140.8%	-4,827	71.4%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리크리에이션	2,472	1,143	1,563	-1,329	46.2%	420	136.8%	-909	63.2%
공연예술 및 관람스포츠	512	269	271	-243	52.6%	2	100.6%	-241	52.9%
박물관, 역사유적 및 유사기관	175	125	123	-50	71.5%	-3	97.9%	-53	70.0%
오락, 도박, 레크리에이션	1,786	749	1,170	-1,037	41.9%	421	156.2%	-616	65.5%
숙박 및 음식점 서비스	14,394	7,406	10,477	-6,988	51.5%	3,071	141.5%	-3,917	72.8%
숙박업	2,091	1,179	1,305	-912	56.4%	126	110.7%	-786	62.4%
식당 및 주점	12,303	6,227	9,172	-6,076	50.6%	2,945	147.3%	-3,131	74.6%
기타 서비스	5,941	4,571	5,189	-1,370	76.9%	618	113.5%	-752	87.3%
개인서비스 및 세탁 서비스	1,537	685	1,120	-852	44.6%	435	163.5%	-417	72.9%

자료: 미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

자동차 및 부품 딜러업에서의 2월에 비한 4월의 취업자감소율은 18.3%에 이르고 2월에 비한 6월의 취업자 감소율은 10.2%에 이른다. 4월까지 38만의 취업자가 줄어들었다가 상당폭 개선이 되었으나 여전히 21만의 취업자가 감소한 상태다.

잡화점의 경우 그 하위 업종들의 취업자 변화가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다. 백화점은 취업자가 줄고 ‘창고 클럽 및 수퍼센터 등’은 취업자가 늘었다. 코로나 19 대유행 시기의 대면 업종과 비대면 업종의 차이가 극명하다. 일단 2월에서 4월까지 백화점에서는 27만의 취업자가 줄었고 취업자 감소율은 24.8%에 이르렀다. ‘창고 클럽 및 수퍼센터 등’에서는 9만의 취업자가 늘었고 취업자증가율을 4.6%에 이르렀다. 4월과 6월 사이에 백화점은 취업자가 약 10만이 증가했고 ‘창고 클럽 및 수퍼센터 등’에서는 계속해서 약 10만이 늘었다. 결국 2월에서 6월 사이에 백화점은 전체 취업자가 17만이 줄었고 ‘창고 클럽 및 수퍼센터 등’에서는 취업자가 약 19만이 늘었다. 백화점에서 없어진 취업자수와 거의 동일한 수의 취업자가 ‘창고 클럽 및 수퍼센터 등’에서 생겨났다. 백화점의 취업자 감소율은 15.9%이고 ‘창고 클럽 및 수퍼센터 등’의 취업자증가율은 9.5%에 이르렀다. 두 업종을 더한 잡화점의 취업자수는 2월과 6월 사이에 약 1만 5천개가 늘었다.

항공운송은 2월부터 6월까지 계속해서 취업자가 줄어들었다. 2월에서 4월 사이에 약 8만, 5월에 5만, 6월에 4천개. 그래서 2월에서 4월 사이에 취업자 감소율은 15.3%였는데 2월에서 6월 사이 취업자감소율은 25.7%로 커졌다. 6월들어 취업자 감소가 대폭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업종 중 하나다. 록다운 해제 이후에도 계속해서 취업자가 줄어드는 업종은 대개는 코로나 19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원인으로 어려워진 업종인데, 이 항공운송은 코로나 19 대유행 때문에 어려워진 업종이 맞다. 일국 내에서는 록다운이 해제되어도 해외여행자의 2주간 격리 등의 이유로 국가간 이동이 여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 항공운송은 코로나 19 대유행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회복될 업종으로 보인다. 물론 화물 항공운송은 코로나 19 대유행 때문에 어려워질 이유는 없어서 항공운송 전 부문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관광운송은 취업자 규모는 아주 작지만 2월에서 4월 사이에 가장 취업자 감소율이 큰 업종이다. 무려 65.9%가 감소하였다. 4월에서 6월 사이에 약간 회복되었지만 2월에서 6월 사이의 취업자감소율이 여전히 47.1%로 매우 높다.

택배도 ‘창고 클럽 및 수퍼센터 등’도 2월에서 6월 사이 계속해서 취업자가 늘어난 업종이다. 2월에 비한 6월의 취업자 증가율은 6.7%다. 유틸리티 업에서의 취업자는 아주 미세하지만 계속해서 줄고 있다. 경제 전반의 성장저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산업 중 영화 및 사운드 레코딩 산업은 2월에서 4월 사이에 취업자가 약 24만이 줄어들었고 감소율은 무려 51.7%에 이른다. 그 이후 5월에도 1만이 줄었고 6월에 겨우 3천개의 취업자가 늘어나 전반적으로 4월까지의 취업자 감소에서 큰 변화는 없다.

금융업은 2월에서 4월 사이에 약 28만이 줄었고 취업자감소율은 3.2%에 달한다. 그 이후 약간 회복되었고 전반적으로 취업자 감소가 크지 않다.

전문 및 사업서비스 중 단기 노무 서비스는 2월에서 4월 사이에 약 89만의 취업자가 사라졌고 취업자감소율은 30.3%에 달했다. 5월에 약 5만, 6월에 약 15만의 취업자가 증가해서 2월에서 6월 사이에 전체 취업자 감소 규모는 약 70만에 이르고 감소율은 23.7%에 이르러 여전히 꽤 높은 수준이다.

여행사업은 전체 취업자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으나 2월에서 6월 사이에 계속해서 취업자가 줄고 있고 2월에 비한 6월의 취업자감소율은 27.4%로 꽤 높은 수준이다. 항공운송업과 그 성격이 유사한 업종이라 해야 할 것이다.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중 2월에서 4월 사이에 치과업에서 55만의 취업자 감소가 있었고 취업자 감소율이 무려 56.2%에 이르렀다. 그런데 4월에서 6월 사이에 급속한 회복을 보였고 결국 2월에서 6월 사이에 취업자 감소 규모는 10만에 그쳤고 취업자감소율은 10.5%를 보이고 있다.

아동 돌봄 서비스업은 2월에서 4월 사이 취업자 감소 규모가 약 37만에 이르렀고 취업자 감소율은 35.7%로 꽤 높았다. 그 이후 약간 회복되었지만 2월에 비

한 6월의 취업자감소율은 24.9%로 여전히 꽤 높다.

레저 및接客업 중 공연예술 및 관람스포츠업은 2월에서 4월 사이에 취업자가 약 24만 줄어들어 취업자 감소율이 47.4%에 달했다. 그 이후 5월과 6월에 아주 미미한 감소와 증가가 있었고 결국 2월에 비한 6월의 취업자감소율은 47.1%에 달하고 있다.

‘박물관, 역사유적 및 유사기관’에서는 2월에서 4월 사이에 취업자가 28.5%가 감소하였고, 그 이후에도 커다란 변화가 없어서 6월엔 2월에 비해 약 30%가 감소해 있다.

‘오락, 도박 및 레크리에이션’은 2월에서 4월 사이에 약 104만의 취업자가 감소하여 취업자감소율이 무려 58.1%에 이르렀다. 그 뒤 5월에 약 7만, 6월에 약 35만의 취업자가 증가해 2월에 비한 6월의 취업자 감소율은 34.5%에 달해 아직도 감소율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숙박업은 2월에서 4월 사이에 약 91만의 취업자가 감소하여 취업자감소율이 43.6%에 이르렀다. 그 뒤 5월에는 약 11만의 취업자가 더 줄었고, 6월에는 약 24만의 취업자가 늘었다. 결국 2월에 비한 6월의 취업자 감소율은 37.6%로 아직도 매우 높은 상태다.

‘식당 및 주점’은 2월에서 4월 사이에 약 608만의 취업자가 감소하여 취업자감소율이 무려 49.4%에 이르렀다. 감소한 취업자 규모로 보면 가장 커라단 업종이다. 그 뒤 5월에 약 146만, 6월에 약 148만의 취업자가 증가해 2월에 비한 6월의 취업자 감소는 약 313만에 달하고 같은 기간 동안 취업자감소율은 34.5%에 달해 아직도 감소율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그리고 ‘식당 및 주점’에서 취업자 회복 규모는 5월과 6월이 거의 동일하다.

기타서비스 중 ‘개인서비스 및 세탁서비스’는 2월에서 4월 사이에 약 85만의 취업자가 감소하여 취업자감소율이 무려 55.4%에 이르렀다. 그 뒤 5월에 약 17만, 6월에 약 26만의 취업자가 증가해 4월에서 6월 사이에 늘어난 취업자가 약 44만에 달했다. 2월에 비한 6월의 취업자 감소 규모는 약 41만에 달하고 취업자 감소율은 27.1%에 달해 아직도 감소율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3) 소결

2월부터 4월까지 2,216만의 취업자가 사라져 14.5%의 감소율을 보였다가 4월에서 6월까지 750만의 취업자가 다시 늘어나 2월에서 6월까지 감소한 취업자수는 1,466만이고 이 동안의 취업자감소율은 9.6%에 이른다. 5월과 6월에 취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섰다고는 하나, 록다운 해제와 임금보장프로그램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업자감소율이 매우 높다.

코로나 19 대유행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록다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받는 부문은 4월까지 취업자감소율이 높았다가 록다운이 해제되면서 5월과 6월에는 일정하게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도 그 정도가 심한 부분(대표적으로 ‘레저 및 접객업’)과 그렇지 않고 비교적 약한 부문도 있다. 물론 코로나 19 대유행이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항공운송업의 경우 미국 내 록다운이 해제되어도 여전히 국가간 이동에 제약이 잔존하고 있어서 6월까지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 19 대유행과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원인으로 취업자가 줄고 있는 업종의 경우 6월까지 계속해서 취업자가 줄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광업이 그렇다.

취업자감소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민간서비스부문, 그 중에서 ‘레저 및 접객업’, 그 중에서도 ‘식당 및 주점’이다.

‘식당 및 주점’은 2월에서 4월 사이에 약 608만의 취업자가 감소하여 취업자감소율이 무려 49.4%에 이르렀다. 그 뒤 5월에 약 146만, 6월에 약 148만의 취업자가 증가해 2월에 비한 6월의 취업자 감소는 약 313만에 달하고 같은 기간 동안 취업자감소율은 34.5%에 달해 아직도 감소율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2) 미국의 실업통계 분석

미국의 공식실업률¹⁰⁾은 코로나 19 록다운이 취해지기 전인 2월에 3.5%, 그리고 3월에 4.4%였다가, 록다운의 영향이 전면적이었던 4월 실업률이 14.7%를 보

였다. 그러다가 록다운이 해제되기 시작한 5월에는 13.3%, 록다운이 전면 해제된 6월에는 11.1%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실업률은 미국 노동부조차 추계오류로 과소추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즉 실업자로 분류할 사람들을 취업자로 분류했다는 것인데 그 수치가 4월에 무려 5%포인트, 5월에 3%포인트, 6월에 1%포인트에 달한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면 실업률은 4월 19.7%, 5월 16.3%, 7월 실업률 12.1%가 된다.¹¹⁾ 한편 4월 이후 600만 내외의 비경제활동인구의 급증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가 과소 추계되었다. 이것까지 감안하면 4월, 5월, 6월의 실업률에 3-4%포인트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까지 감안하면 6월 실업률은 여전히 14-5%대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정도의 실업률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최고 실업률 10.0%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문제는 코로나 19 대유행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록다운 해제의 효과도 그리 크지 않았고 록다운이 해제되었다고 경제생활이 전면적으로 재개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조기 백신개발도 집단면역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1-2년은 더 갈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3) 미국의 고용 및 실업 상황 종합 및 약간의 전망

4월까지 급전직하하던 고용도 5월과 6월 들어 증가하고 있고, 실업률 또한 4월에 최고를 기록한 이후 5월과 6월에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고용-실업 상황의 개선이 그리 활발하지 않다. 아직도 2월에 비해 취업자 감소 규모가 1,466만에 이르고 있고, 취업자 감소율이 9.6%에 달하고 있다. 실질 실업률은 여전히 14-5%대를 기록하고 있어 2008년 최악의 시기의 실업률 10.0%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10) 2월 이후 각 달의 실업규모는 2월에 존재하고 있던 실업규모에다 2월부터 해당월 사이에 감소한 고용규모, 그리고 그 기간사이에 늘어난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하지 못한 인구를 더하면 구할 수 있다. 고용 감소 규모만 실업규모인 것은 아닌 것이다.

11) https://www.bls.gov/news.release/archives/empsit_05082020.pdf,
https://www.bls.gov/news.release/archives/empsit_06052020.htm,
<https://www.bls.gov/news.release/pdf/empsit.pdf>

록다운과 관련해서는 4월 말에서 5월 초 중순(5월 고용통계 조사기간 전)까지 약 인구의 3분의 1을 점유하는 주들에서 록다운이 해제되었고 6월 조사시점까지는 6월 13일에 가장 늦게 록다운을 해제한 뉴욕주를 끝으로 전 주에서 전면적인 록다운은 해제되었다. 물론 실내 식당이나 바 등과 관련한 부분적인 영업제한조치는 남아있다.¹²⁾ 한편 취업자수 회복이 더딘 것은 회복에 일정한 시간이 요구되어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감염위험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록다운은 없을지라도 예전과 같은 경제생활을 전면화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결국 행정명령을 통한 록다운 해제의 효과가 온전히 발휘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고용증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6월 하순 이후 전국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레스토랑 예약자수가 -60%에서 정체하거나 약간 더 줄어드는 추세이고, 플로리다, 텍사스, 아리조나, 캘리포니아에서는 다소 급격하게 다시 줄어들고 있다. 당연히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¹³⁾ 7월 혹은 8월 통계에 반영이 될 것이다.¹⁴⁾

한편 순환적 공황에서 비롯한 취업자 감소는 록다운 해제로도 쉽게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미 정부의 정책수단은 많이 소진된 상태다. 이자율은 제로금리로 내려와서 더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도 매우 커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정부지출도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지출의 대부분이 재난구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경기부양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즉 노동자들과 기업의 연명을 위한 정부지출이지 정부지출의 효과가 평소

12) 뉴욕시는 1차 정상화를 6월 8일에 했고, 2차 정상화는 6월 22일에 했는데 이 때 30만명의 노동자가 출근했다. 3단계 정상화는 실내 식당 영업과 개인 돌봄 서비스를 정상화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정상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13) https://www.calculatedriskblog.com/2020/07/six-high-frequency-indicators-for_13.html 를 참조하라.

14) 6월 고용동향은 6월 12일이 낀 주의 상황이고 7월 고용동향은 7월 12일이 낀 주의 상황이어서 7월 고용동향이 반드시 6월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6월 12일이 낀 주에서 개선되다가 6월말부터 악화되었다면, 그 사이의 개선 정도와 악화 정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더 나쁠 수도, 혹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같이 경제 전 부분에서 성장을 제고하고 그 결과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상태라는 것이 문제다. 실질적인 록다운이 지속되면 ‘레저 및 접객업’, ‘항공업’ 등이 불가피하게 일부 죽어 있을 것이고 전후방 연관 산업도 일정하게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정부지출의 경기부양효과(승수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500만 업체의 5100만명이 임금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의 도움을 받아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 프로그램도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작년 고용규모를 두 달간 유지할 경우 대출금 상환을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6월 초에 그 기간이 6개월로 바뀌었다. 그래서 프로그램 초기에 이 대출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와 바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가 각각 고용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다르다. 처음 이 대출금을 이용한 기업들은 일시 해고한 노동자들을 4월 중하순부터 5월에 대거 재고용했고 이것이 5월과 6월의 고용통계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초기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많은 기업들이 7월부터 해고를 할 수가 있어서 이 경우 7월부터 취업자를 줄이고 실업자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단편적으로 관련 통계도 일부 나오고 있다. 7월 12-18일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141만건을 기록해 전주보다 10만건 정도가 늘어났다. 그리고 미국 센서스에서 이번 위기에 새롭게 선보인 household pulse survey(가계 경제상황 조사)에 따르면 6월에 증가한 고용규모보다 7월에 감소할 고용규모가 더 클 것으로 나오고 있다.¹⁵⁾

다른 한편 평상시 실업급여에 비해 주 600달러가 추가되는 넉넉한 실업급여가 7월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것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실업노동자들이 낮은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취업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는 저임금 불안정노동일지라도 8월 이후 고용을 늘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결국 확진자수 증가세, 1차와 2차 임금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의 종료 시기, ‘넉넉한 실업급여’의 종료가 이후 매월의 고용 및 실업구

15) <https://www.calculatedriskblog.com/2020/07/census-household-pulse-survey-shows-264.html> 를 참조하라.

모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고용은 4월에서 6월 사이에 어느 정도 증가했으나 이후 이들 변수의 영향력에 따라 취업자수가 변동할텐데 대체로 고용증가 속도는 매우 미미하거나 고용증가와 감소를 오가면서 현재 정도의 고실업 상태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한국의 고용-실업통계 분석

1) 한국의 취업자 분석

한국의 4월 취업자(계절조정) 규모는 2월에 비해 약 102만이 줄었고 비율상으로는 3.7%가 감소하였다. 고용규모는 대체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2월 이후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그리고 월별 감소를 보면 3월에 68만이 줄어들었고 4월에 약 34만이 줄어들어 3월 감소 규모가 4월 감소규모보다 더 컸다. 이렇게 취업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다. 5월 초 ‘생활방역’으로 돌아간 이후 취업자는 증가하고 있다. 5월에 전월 대비 약 15만이 늘었고 6월에는 전월 대비 약 8만이 늘었다. 6월 증가 규모가 5월 증가 규모에 비해 더 적다. 5월의 증가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의 효과일 것이고, 6월의 증가는 한국의 생활방역으로의 복귀의 지연된 효과 일부와 세계 각국에서 록다운 해제 효과가 합쳐진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인데 그 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세계 각국에서 록다운 해제 효과는 그것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가 본격화하기 전인 2월에 비해 6월 현재 약 79만이 줄어들었고 비율로 보면 2.9%가 감소하였다. 4월에서 5월 사이에 개선된 것에 비해서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개선된 정도가 보다 덜하다.

〈표 4〉 한국의 전체 취업자 변동(단위: 천명)

	2020. 02	2020. 03	2020. 04	2020. 05	2020. 06	'04/'02	'06/'02
(계절조정)취업자	27,522	26,842	26,504	26,657	26,736	96.3%	97.1%
전월대비 (계절조정)취업자 증감	19	-680	-338	153	79		
2월 대비 (계절조정)취업자 증감	0	-680	-1,018	-865	-786		

이제 연령별, 산업별, 직종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변동을 살펴보기로 하자.

(1) 한국의 연령별 취업자 분석

연령대별 취업자 변동을 보면 2월부터 4월까지 취업자감소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5-19세’, ‘60세 이상’, ‘20-29세’ 연령대 순이다. ‘15-19세’ 연령대의 취업자감소율은 $100-72.6=27.4\%$ 에 이른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서비스 관련 업종에서 알바로 일하던 청소년 노동의 감소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연령대 전체 취업자 규모가 크지 않아서 숫자로만 2월부터 4월까지 약 5만이 감소했다. 그런데 생활방역으로 돌아선 이후 이들 연령대 취업자는 다시 4만 5천명 정도가 늘어 2월 취업자 규모를 거의 회복을 한 상태다.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2월에서 4월 사이에 약 44만명의 취업자 감소가 있었다. 전 연령대에서 최대 규모 감소다. 감소율도 매우 높아 8.2%를 기록하고 있다. 생활방역으로 돌아선 이후 약 12만이 증가해, 2월과 6월 전 기간으로 보면 약 32만명이 줄어든 상태다. 이 전 기간 감소율은 5.9%로 역시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연령대의 이런 심각한 취업자 감소는 50-60만을 취업시키던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된 때문이라 추측이 된다. 생활방역으로 돌아선 이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약간 재재되고 있는데 늘어난 취업자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20-29세 연령대에서는 2월과 4월 사이에 취업자가 약 16만이 줄어서 감소율이 4.3%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령대의 경우 생활방역으로 돌아선 이후 취업자가 거의 늘지 않고 있다. 그래서 2월에서 6월 사이 전체 취업자 감소는 약 15만에 이르고 감소율은 4.1%에 달한다. 6월 기준으로 보면 ‘60세 이상’ 연령대 다음으로 취업자 감소율이 높다.

한편 ‘30-39세’, ‘40-49세’ 연령대는 2월에서 4월 사이뿐만 아니라 4월에서 6월 사이에도 취업자수가 줄었다. 표에는 안나와 있지만 특히 ‘40-49세’ 연령대는 6월에는 취업자가 조금이나마 증가한 ‘30-39세’ 연령대와는 달리 매월 줄어들었다. 생활방역으로 돌아선 것이 취업자의 감소를 되돌리지 못한 것이다. 국내 코로나 19 유행과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는 연령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40-49세’ 연령대는 2월에서 4월 사이에 취업자감소율이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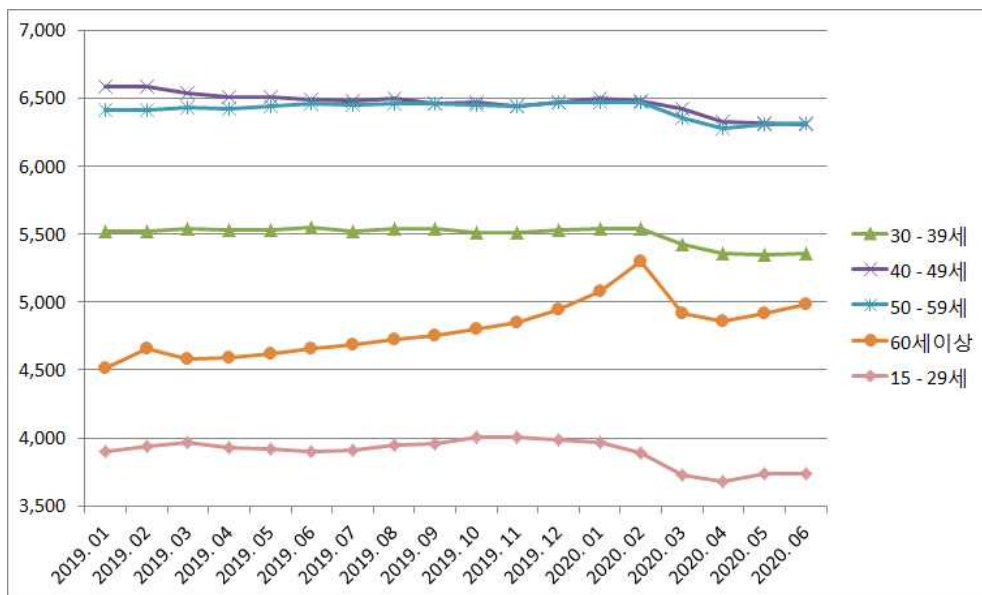
연령대보다는 작아서 2월에서 6월 사이 감소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감소율이 2.7%다([표 5], [그림 1] 참조).

[표 5] 한국의 연별별 취업자 추이(단위: 천명)

	2020. 02	2020. 04	2020. 06	2월-4월	4월/2월	4월-6월	6월/4월	2월-6월	6월/2월
15 - 29세	3,888	3,679	3,733	-209	94.6%	54	101.5%	-155	96.0%
15 - 19세	179	130	175	-49	72.6%	45	134.6%	-4	97.8%
20 - 29세	3,709	3,549	3,557	-160	95.7%	8	100.2%	-152	95.9%
30 - 39세	5,537	5,361	5,355	-176	96.8%	-6	99.9%	-182	96.7%
40 - 49세	6,484	6,326	6,311	-158	97.6%	-15	99.8%	-173	97.3%
50 - 59세	6,470	6,278	6,316	-192	97.0%	38	100.6%	-154	97.6%
60세 이상	5,296	4,860	4,981	-436	91.8%	121	102.5%	-315	94.1%
15 - 64세	24,645	23,895	24,004	-750	97.0%	109	100.5%	-641	97.4%

자료: 국가통계포털

[그림 1] 한국의 연령별 취업자(계절조정) 추이(단위: 천명)



자료: 국가통계포털

(2) 한국의 산업별 취업자 분석

산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코로나 19 대유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월에서 4월 사이에 취업자가 8.6%나 하락했다. 4월에서 6월 사이에 취업자가 2.2% 늘었다고 하나 2월과 6월 사이 전체로는 여전히 6.6%가 하락했다.¹⁶⁾

제조업 취업자수는 그 하락정도는 약하지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그 비중이 가장 커서 감소율이 크지는 않으나 절대규모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 다음으로 크다.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는 코로나 19 대유행 간접영향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환원되지 않은, 앞서 얘기한 구조적 위기의 효과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2월에서 6월 사이 취업자 감소율은 6.6%이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 19 대유행 간접영향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환원되지 않은, 다른 원인(부동산 상승 억제정책)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표 6] 참조).

16) 이는 미국도 ‘숙박 및 음식점 서비스’가 취업자 감소율이 가장 큰 업종 중의 하나다. 고용인구가 많아 절대 수로 보면 고용감소가 가장 큰 업종인데, 미국은 서비스업 비중이 더 크고 록다운도 더 심하게 진행되어 부침이 한국보다 훨씬 심하다. 물론 해고의 자유가 극단적으로 보장되어서이기도 하다. 미국 ‘숙박 및 음식점 서비스’의 경우 2월에서 4월까지 취업자 감소율이 무려 48.5%에 이르렀고 4월에서 6월 사이에 취업자 증가율이 41.5%에 달했다. 결국 2월에서 6월 사이의 취업자감소율은 27.2%에 달했다.

[표 6] 한국의 산업별 취업자 추이(단위: 천명)

	2020. 02	2020. 04	2020. 06	2월-4월	4월/2월	4월-6월	6월/4월	2월-6월	6월/2월
농업, 임업 및 어업	1,529	1,425	1,411	-104	93.2%	-14	99.0%	-118	92.3%
광업	14	15	13	1	107.1%	-2	86.7%	-1	92.9%
제조업	4,454	4,397	4,354	-57	98.7%	-43	99.0%	-100	97.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7	65	72	-12	84.4%	7	110.8%	-5	93.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143	149	154	6	104.2%	5	103.4%	11	107.7%
건설업	2,018	1,940	1,970	-78	96.1%	30	101.5%	-48	97.6%
도매 및 소매업	3,560	3,549	3,516	-11	99.7%	-33	99.1%	-44	98.8%
운수업	1,507	1,450	1,490	-57	96.2%	40	102.8%	-17	98.9%
숙박 및 음식점업	2,285	2,089	2,135	-196	91.4%	46	102.2%	-150	93.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49	852	859	3	100.4%	7	100.8%	10	101.2%
금융 및 보험업	796	793	777	-3	99.6%	-16	98.0%	-19	97.6%
부동산업 및 임대업	548	525	512	-23	95.8%	-13	97.5%	-36	93.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85	1,144	1,147	-41	96.5%	3	100.3%	-38	96.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343	1,309	1,310	-34	97.5%	1	100.1%	-33	9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29	1,053	1,065	-76	93.3%	12	101.1%	-64	94.3%
교육 서비스업	1,862	1,758	1,812	-104	94.4%	54	103.1%	-50	97.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385	2,254	2,351	-131	94.5%	97	104.3%	-34	98.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16	487	518	-29	94.4%	31	106.4%	2	100.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29	1,147	1,188	-82	93.3%	41	103.6%	-41	96.7%

(3) 한국의 직업별 취업자 분석

직업별 취업자 변동을 보면 4월까지의 서비스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취업자 감소율이 높았으나 이들 직업군은 4월과 6월 사이에 일정하게 회복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단순노무 종사자의 취업자의 증가세가 가장 컸다.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경우 2월에서 4월사이 뿐만 아니라 4월에서 6월 사이에도 취업자가 감소했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감소는 농업 비중의 축소라는 근본적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야겠다.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감소세가 이례적인데 코로나 19 대유행이라는 원인 이외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요인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앞서 ‘40-49세’ 연령대의 취업자,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2월에서 6월까지 취업자감소율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와 서비스종사자이고 그 감소세는 그리 크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직업군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다.

[표 7] 한국의 직업별 취업자 추이(단위: 천명)

	2020. 02	2020. 04	2020. 06	2월-4월	4월/2월	4월-6월	6월/4월	2월-6월	6월/2월
관리자	377	401	395	24	106.4%	-6	98.5%	18	104.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632	5,413	5,455	-219	96.1%	42	100.8%	-177	96.9%
사무 종사자	4,744	4,704	4,673	-40	99.2%	-31	99.3%	-71	98.5%
서비스 종사자	3,227	2,982	3,049	-245	92.4%	67	102.2%	-178	94.5%
판매 종사자	2,953	2,923	2,928	-30	99.0%	5	100.2%	-25	99.2%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466	1,374	1,348	-92	93.7%	-26	98.1%	-118	92.0%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371	2,284	2,287	-87	96.3%	3	100.1%	-84	96.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037	2,964	2,935	-73	97.6%	-29	99.0%	-102	96.6%
단순노무 종사자	3,724	3,474	3,648	-250	93.3%	174	105.0%	-76	98.0%

자료: 국가통계포털

(4) 한국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분석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2월부터 4월까지 취업자 감소율이 가장 큰 범주는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다. 4월에서 6월 사이에 이들 부문은 증가세로 돌아섰고 특히 일용근로자는 5월 생활방역으로 돌아선 이후 급격하게 회복했고 6월에도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용근로자는 2월에서 6월 사이 전체로 보면 감소율이 1.7%에 그쳐 다른 범주에 비해 감소율이 크지 않다. 대신 임시근로자의 증가세는 일용근로자 증가세에 못 미쳐 2월에서 6월 사이 감소율이 6.6%로 매우 높다. 이는 대도시 코로나 19 확산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유흥업소도 여기에 포함된다)의 활성화 속도가 느려 여기에서 일하던 임시직의 증가가 기대에 못 미친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2월에서 4월사이에도 그리

고 4월에서 6월 사이에도 감소하였다. 2월에서 6월 사이 전체로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율이 전체 범주 중에 가장 높다.

[표 8] 한국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추이(단위: 천명)

종사상지위별	2020. 02	2020. 04	2020. 06	2월-4월	4월/2월	4월-6월	6월/4월	2월-6월	6월/2월
비임금근로자	6,744	6,594	6,500	-150	97.8%	-94	98.6%	-244	96.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472	1,391	1,357	-81	94.5%	-34	97.6%	-115	9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174	4,155	4,116	-19	99.5%	-39	99.1%	-58	98.6%
무급가족종사자	1,099	1,048	1,028	-51	95.4%	-20	98.1%	-71	93.5%
임금근로자	20,722	19,914	20,247	-808	96.1%	333	101.7%	-475	97.7%
상용근로자	14,631	14,415	14,490	-216	98.5%	75	100.5%	-141	99.0%
임시근로자	4,723	4,271	4,413	-452	90.4%	142	103.3%	-310	93.4%
일용근로자	1,368	1,229	1,345	-139	89.8%	116	109.4%	-23	98.3%

자료: 국가통계포털

2) 한국의 실업통계 분석

6월 실업자규모(계절조정)는 약 121만명으로 2월 약 93만에 비해 29만명이 늘었다. 5월 실업자규모는 약 124만명인 것에 비해 약 3만명이 줄어든 것이다([표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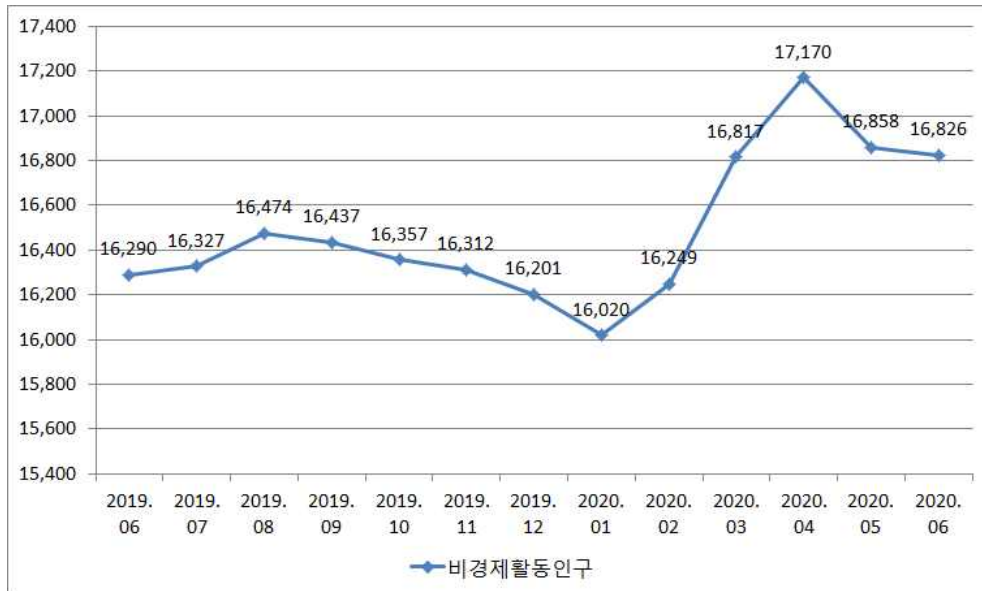
그런데 은폐된 실업자도 있는데 바로 비경제활동인구(계절조정)의 폭증이다. 2월까지의 매월의 증감의 변화가 크지 않은데 3월부터 폭증했다. 그래서 2월에 비한 3월, 4월, 5월, 6월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코로나 공황’ 이후 발생한 은폐된 실업자로 보아도 무방하다. 2월에 비한 6월의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규모(은폐된 실업자 규모)는 $16826 - 16249 = 577$ 천명, 즉 약 58만명이 늘었다. 2월에 비해 4월의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규모는 약 92만명이다. (2월에 비한) 4월의 증가 규모에 비해 (2월에 비한) 6월의 증가규모는 조금 작아졌지만 여전히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은폐된 실업자규모가 58만명에 달한다([그림 2], [표 9] 참조). 한편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중 남성이 20만명이고 여성이 38만명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인한 은폐 실업자 규모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다.

[표 9] 한국의 실업자 증감(단위: 천명)

	2020. 02	2020. 03	2020. 04	2020. 05	2020. 06	'04/'02	'06/'02
(계절조정)실업자(A)	927	1,054	1,051	1,242	1,213	113.4%	130.9%
전월 대비 실업자 증감	-216	127	-3	191	-29		
2월 대비 실업자 증감		127	124	315	286		
(계절조정)비경제활동인구	16,249	16,817	17,170	16,858	16,826	105.7%	103.6%
전월 대비 (계절조정)비경제활동인구 증감	229	568	353	-312	-32		
2월 대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B)	0	568	921	609	577		
실질실업자(C=A+B)	927	1,622	1,972	1,851	1,790	212.7%	193.1%
전월 대비 실질실업자 증감		695	350	-121	-61		
2월 대비 실질실업자 증감		695	1,045	924	863		
일시휴직자	618	1,607	1,485	1,020	729		
전년 동기 대비 일시휴직자 증감(D)	142	1,260	1,130	684	360		
잠재실업자(E=C+D)	1,069	2,882	3,102	2,535	2,150	290.2%	201.1%
전월 대비 잠재실업자 증감		1,813	220	-567	-385		
2월 대비 잠재실업자 증감		1,813	2,033	1,466	1,081		

공식실업자와 2월 이후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규모를 더해 이를 ‘실질실업자’로 부르기로 하자. 6월에 이 규모는 약 179만명이다. 2월 약 93만명에 비해 약 86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 수치는 3월, 4월까지 늘어나다가 5월, 6월에 줄어 들었다. 즉 4월에 약 197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5월에 약 185만, 6월에 약 179만으로 줄어든 것이다. 3월에 폭증을 해 약 70만이 늘었고, 4월에도 전월에 비해 약 35만이 늘었다가 생활방역으로 돌아간 5월에 약 12만이 줄었고, 세계적으로 록다운이 해제된 6월에 약 6만이 줄었다. 그러나 2월의 실질 실업자 규모에 비하면 아직도 약 86만명이 늘어난 것이고 비율로 보면 거의 배(193.1%)에 달하고 있어서 실질실업자 규모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표 9] 참조).

[그림 2] 비경제활동인구(계절조정)(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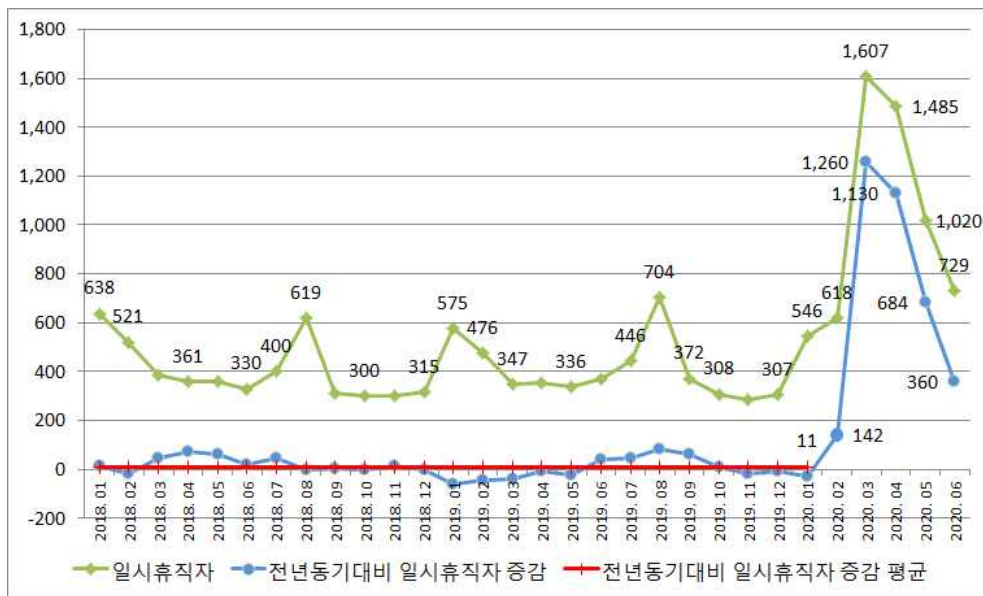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

한편 이외에 일시휴직자 문제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그림 2]를 보면 일단 일시휴직자는 1월과 2월, 그리고 8월엔 다른 달보다 20-30만명 대 정도로 많아지다가 다른 달엔 거의 3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규칙성을 보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대비 일시휴직자 증감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0만명을 넘어가는 경우도 없었고 10만명 이상 감소하는 경우도 없었다. 전년동기대비 일시휴직자 증감 평균은 약 1만 1천명이다. 그래서 1만 1천명을 무시하면 2020년 2월, 3월, 4월, 5월의 이례적인 전년동기대비 일시휴직자 증가 규모는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나타난 결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들은 시간이 가면서 다시 작업이나 업무로 복귀해 일을 하던지, 공식적인 실업자가 되던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이 되던지 할 것이다. 4월의 전년동기대비 일시휴직자 증가 규모는 113만명인데 5월엔 약 68만명, 6월엔 36만명에 그쳤다. 이렇게 4월에 비해 5월과 6월의 전년동기대비 일시휴직자 증가 규모가 상당폭 줄어든 것은 5월부터 생활방역으로 돌아가면서 경제활동이 약간 개선되어 이들 중 일부는 작업이나 업무로 복귀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 중 다른 일부는 공식 실업자로 편입된 결과로 보인다(극히 일부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었을 것이다). 5월에 경제생활이 조

금 더 활발해 졌는데도 실업자가 늘어난 것은 여기에 주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일시휴직자변동과 전년동기대비 일시휴직자 증감(단위: 천 명)



자료: 국가통계포털

실질적 실업자와 이 전년동기 대비 일시 휴직자 증가 규모를 더한 것을 ‘잠재실업자’로 부르기로 하자. 즉 잠재실업자 규모는 공식실업자+2월에 비한 (계절조정)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전년동기대비 일시휴직자 증가 규모가 될 것이다. 6월에 이 규모는 약 215만명이다. 2월 107만명에 비해 약 108만명이 더 증가한 것인데, 3월 약 288만명, 4월 약 310만명, 5월 약 254만명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이 잠재실업자가 최고치를 기록한 4월에 비해서는 약 95만명이 줄어든 것이고, 5월에 비해서는 약 39만명이 줄어들었다.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한국의 경우 3월에 잠재실업자가 급격하게 늘었고 4월에는 미증했다가 5월부터는 줄어들었는데 5월에 줄어든 것에 비해 6월엔 그 감소규모가 조금 덜하다. 그러나 2월의 잠재실업자 규모에 비하면 아직도 약 108만명이 늘어난 것이고 비율로 보면 약 2배에 달해 잠재적 실업문제가 아직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수치는 한국이 생활방

역으로 돌아간 이후 두 달째를 경과하고 있고,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록다운이 해제된 이후의 수치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3) 한국의 고용-실업 상황 종합 및 전망

코로나 19 대유행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받는 부문은 4월까지 취업자감소율이 높았다가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일정하게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도 그 정도가 심한 부분과 그렇지 않고 비교적 약한 부문도 있다.

한국의 취업자 감소의 가장 대표적인 범주는 ‘60세 이상’ 연령대,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종사자, 임시직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 그리고 인데 그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60세 이상’ 연령대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서비스 종사자 중 임시직이라 할 수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감소는 생활방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대도시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의 활성화 속도가 느려 여기에서 일하던 임시직의 증가가 기대에 못 미친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대로 보면 ‘40-49세’, 산업으로 보면 ‘제조업’, 직업별로 보면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종사상직위별로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부문처럼 6월까지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감소하는 부문이 있는데 이는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영향 이외에 이와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변수에 의해 일부 영향을 받는 부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나 미국의 순환적 공황에 영향 아래 있는 부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5월, 6월의 취업자 증가 추세가 이후 지속될 것인지, 지속된다고 해도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향후 추이를 더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 세계가 록다운이 해제되었지만 6월 중순 이후 코로나 19 확진자수 폭증이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서 행정명령에 따른 전면적인 록다운은 아닐지라도 부분적인 록다운은 다시 취해지고 있고 자발적으로 모임, 이동 등을 자제하기도 해서 5월, 6월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어 보인다. 코로나 19 확산 정도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오갈 가능성이 높고 추세적으로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주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공식 실업자(계절조정) 규모는 2월에 비해 약 29만명 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비경제활동인구(계절조정)의 2월 대비 증가 규모를 더한 ‘실질실업자’ 규모나 이 ‘실질실업자’에 일시휴직자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 규모를 더한 ‘잠재실업자’ 규모는 2월에 비해 대략 2배에 이르고 있다. 이마저 5월과 6월에 개선이 되어서 이 정도인데 한국의 경우 5월에 생활방역으로 돌아갔고, 6월엔 세계적으로 록다운이 해제된 결과로 나타난 수치여서 이후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4. 결 - 장기에 걸쳐 예상되는 대량실업이 주는 함의

앞서 이야기한대로 다차원의 경제위기가 진행 중인데 그 중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물론 코로나 19의 대유행이다. 고용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한국 두 나라 다 4월에 취업자가 최저치로 내려갔다가 5월(한국 생활방역으로 복귀), 6월(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록다운 해제)을 거치면서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은 코로나 19 대유행에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19 대유행 이외에 이와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변수(구조조적 위기나 미국의 순환적 공황 등)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문도 있고 이들 부문은 록다운 해제 이후에도 고용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한편 고용회복세가 그리 강하지 않고 세계적으로는 5월 중순 이후,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는 6월 중순 이후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부분적인 록다운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백신개발이나 치료제 개발 등 획기적인 상황변화가 없다면 향후 상당기간 동안 고용상황의 개선 여지는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심지어는 악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런 고용-실업 상황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고용-실업 상황이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해고를 최대한 틀어막아야 할 것이다. 몇몇 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한시적) 해고금지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발생한 실업자와 휴업자의 생계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코로나 19 방역차원에서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에서 발생한 측면이 크다.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관련해서 장기실업 노동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휴업도 장기 휴업이나 반복적인 휴업을 당할 노동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면 이런 시기의 실업급여와 휴업수당은 평상시의 실업급여와 휴업수당보다는 많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는 수요부족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불황탈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금 발생해 있는 실업자들이 빨리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야 할 것이다. 재정지출 증대를 통해 직접 일자리를 만들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성장을 제고하고(재정지출승수효과) 일자리를 늘려야 할 것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여력이 훨씬 더 양호한데 재정지출은 더 적다. 2020년 6월에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은 올해 각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 비율을 미국 -23.8%, 독일 -10.7%, 프랑스 -13.6%, 이탈리아 -12.7%, 스페인 -13.9%, 일본 -14.7%, 영국 -12.7%, 중국 -12.1%, 한국 -3.6%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과 중국에 비해 적자율이 매우 낮다. 미국보다는 말할 것도 없고, 재정보수주의로 유명한 독일보다도, 정부부채 수준이 매우 심각한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보다도, 그리고 중국보다도 훨씬 낮다. 물론 중국을 제외한 이들 나라의 경제성장이 한국보다 더 급전직하해서 세입이 줄어든 탓도 있겠지만 비상한 경제위기 시기 한국의 재정지출 증가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때문이기도 하다.¹⁷⁾

한편 일부 산업이나 업종이 장기에 걸쳐 죽어 있거나 부진을 면치 못하고 기존 산업의 성장이나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어려울 것이라면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산업간 인력재배치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 등을 고려하면 노동시간 단축은 더욱 절실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늘려야 하는 정부지출을 위해서는 각종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고소득층과 자산계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 대유행의 장기화는 일부 산업업종이 계속해서 방역 때문에 죽어 있거나 부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경제회복이 용이하지 않거나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방역 차원에서 실업과 휴업과 같은 재난상황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지출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당연히도 정부지출은 많아지는데 현재처럼 정부부채를 계속해서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정부지출을 위한 재원이 다른 어디에선가 마련되어야 할텐데 자산계층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이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다. 간단히 말해서 감염병 확산의 방역 차원에서 상당수의 인구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 비용을 기존 기금에서 충분히 다 마련할 수 없다고

17)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0/06/24/WEUpdateJune2020> 을 참조하라.

한다면, 자산계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이들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들은 ‘레저 및 접객업’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져 저축액이 많아졌다는 보고가 많다.¹⁸⁾ 고소득층과 자산계층에 대한 과세 강화는 재난 시기를 경과하는 사회적 연대의 기본이라 해야겠다.

18)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부자들의 저축 증대에 대한 보고는 많다. 우선 <https://www.accountancydaily.co/uks-richest-line-ps23bn-coronavirus-savings> 와 <https://www.cnbc.com/2020/06/19/a-tale-of-two-coronavirus-recessions-some-thrive-as-others-suffer.html> 를 참고하라.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